



금융감독원

# **보 도 자 료**

금융은 **통통**하게 소비자는 **행복**하게

보도	2024.11.11.(월) 15:00	배포	2024.11.11.(월)			
담당부서	보험리스크관리국 보험리스크총괄팀	책임자	국 장	이태기	(02-3145-7240)	
		담당자	팀 장	박수홍	(02-3145-7242)	
	보험검사1국 검사기획팀	책임자	국 장	홍영호	(02-3145-7790)	
		담당자	팀 장	정영락	(02-3145-7770)	
	보험검사2국 검사기획팀	책임자	국 장	김경수	(02-3145-7680)	
		담당자	부 국 장	최성호	(02-3145-7510)	
	회계감독국 금융회계팀	책임자	국 장	이 석	(02-3145-7750)	
		담당자	팀 장	정주은	(02-3145-7970)	

## **「금리 하락기 IFRS17 안정화 및 리스크관리」 간담회 개최**

### **1 간담회 개요**

- '24.11.11.(월) 금융감독원(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)은 “금리 하락기의 IFRS17 안정화 및 보험사 리스크관리”를 주제로 주요 보험사 및 회계법인 경영진(보험업 최고책임자)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음
- 이번 간담회는 IFRS17 시행 초기 혼란, 해지율 등 제도개선과 더불어 금리하락으로 보험사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
-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감독 방향을 안내하는 한편, IFRS17 안정화 및 리스크관리 관련 당부사항 전달을 위하여 마련되었음

### **「금리 하락기 IFRS17 안정화 및 보험사 리스크관리 간담회」**

- ☑ 일 시 : '24.11.11.(월) 15:00 ~ 16:00
- ☑ 장 소 : 손해보험협회 대회의실
- ☑ 참 석 자 : (금감원) 수석부원장, 보험리스크관리국장, 보험검사1·2국장, 회계감독국장  
(보험업계) <sup>생보</sup> 삼성, 교보, 한화 및 생보협회  
<sup>손보</sup> 현대, 메리츠, 롯데 및 손보협회  
(회계법인) 삼일, 삼정, 한영, 안진

## 2 주요 논의 내용

- 금감원과 참석자들은 IFRS17 안정화를 위한 그간의 노력을 점검·평가하고, 보험회계 및 건전성 이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음

### ① IFRS17 시행 초기 혼란 해소 및 제도 안정화를 위한 그간의 노력

- 참석자들은 금융당국의 적극적 지도에 업계의 이행노력이 더해져 시행초기 회계혼선은 상당부분 완화된 것으로 평가하였으며
- 금감원은 회계오류를 수정\*하는 과정에서 일부 보험사 재무성과에 큰 변동이 있었으나, 이러한 제도 시행초기 시행착오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평가

※ [사례1] A사는 CSM상각률 산출시 할인을 적용상 착오로 인해, 상각률을 낮게 산출하고 당기손익을 과소 인식 [☞ 수정후, '23년 당기손익 약 2천억원 증가]  
[사례2] 다수 보험사가 보험계약 소멸시, 해당계약의 기타포괄손익 잔여금액을 즉시 손익으로 반영하였으나, 연석회의 논의를 통해 이연인식토록 안내 ('24.6월) [☞ 총 15개사 합계 약 2,400억원]

### ② 보험개혁회의(11.4.)에서 발표한 보험회계 및 재무건전성 개선방안

- 참석자들은 제도개선 이행에 만전을 기해 보험 재무정보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
- 금감원은 개선방안이 단기실적 경쟁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인 만큼, 단기적 부담이 따르더라도 이행에 차질 없도록 당부

※ 美 보험사 Penn Treaty는 무저해지보험에 대해 통계부족을 이유로 낙관적 해지율(약 4~5%) 적용 → 실제 해지율(1.5%)이 크게 낮아 대규모 손실 및 자본잠식('08년 \$△0.2B, '17년 \$△4.0B)으로 이어져 파산('17.3월)

### ③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재무건전성 부담 및 리스크관리 중요성 증대

- 참석자들은 IFRS17 도입으로 금리변동에 따른 보험부채 영향이 커진 가운데 지난 2년간 변동성 확대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작용하였다고 평가하였으며
- 금감원은 과거 금리 변동기마다 보험업권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현상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리스크 관리가 여전히 미흡한 측면에 아쉬움 표명

### 3 당부사항

□ 금감원은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중점 당부하였음

① IFRS17이 단기실적 경쟁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자정노력이 절실함

- 근시안적 실적경쟁에 얽매어 IFRS17 원칙 및 도입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되며

‘24년 IFRS17 계도기간 內 모든 이슈가 정리될 수 있도록 보험업계와 회계법인이 맡은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

- 특히, 해지율 개선 관련 당국의 원칙 제시에도 불구하고, 일부사가 단기 실적악화를 우려하여 예외모형을 선택할 것이라는 언론의 의구심이 크다는 점을 언급하며

시장에서 동 사안을 보험권 신뢰회복의 이정표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만큼, 당장의 실적악화를 감추고자 예외모형을 선택하는 우(愚)를 범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

② 자산부채종합관리(ALM) 강화 및 자본확충 등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중요함

- 듀레이션을 적절히 매칭한 보험사는 금리하락시에도 K-ICS비율 영향이 미미하거나 오히려 개선\*되었음을 언급하며,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리스크관리 필요성을 강조하였음

\* 시장금리 100bp 하락시 K-ICS비율 영향 : (A생보사) 변동 미미, (B손보사) 약 15%p 상승

- 보험시장은 현재 포화 국면에 있고 그 어느때 보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을 고려할 때, 무리한 외형확장 보다는 건전성 제고 등 내실위주 경영계획 수립을 당부하였음

## 4 향후 계획

- 금감원은 이번 기회에 “리스크관리 소홀 - 건전성 악화 - 규제유예”의 반복되는 악순환이 끊어질 수 있도록 보험개혁회의 결정사항(해지율 원칙모형 적용, 할인율 단계적 적용 등)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
- 또한, 단기실적 경쟁을 위해 비합리적인 계리가정을 적용함으로써 보험회계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해치는 보험사가 없도록
  - ‘25년도 검사대상 회사를 아래의 원칙하에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집중 검사할 계획

### <‘25년도 우선 검사대상 보험사 선정 원칙>

- ① 무·저해지 상품의 해지율 추정시 원칙모형이 아닌 **예외모형** 적용회사 중 **원칙모형과의 CSM 차이가 큰 회사**
- ② 불완전 판매 등 소비자피해를 유발시키는 판매채널에 대한 영업 **의존도가 높은 회사**
- ③ ‘25년도 경영계획 수립시 **수입보험료 등 외형성장률**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한 회사